

광주·전남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지난달 14일 거립건설이 도산한 데 이어 3일 대동건설(주)이 최종 부도 처리되는 등 올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경기가 극심한 한파를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과 미분양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11월 이후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10곳에 달할 만큼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 건설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대동건설(주)이 지난달 30일 은행권으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데 이어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금융결제원은 대동건설(주)을 4일 당좌거래금지 목록에 올렸다.

대동건설(주)이 거래하던 금융권은 광주은행과 신한은행 등으로 부도액은 15억3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

11월 이후에만 대동건설 등 10개업체 발생 협력사·금융권 등 타격... 지역경제 먹구름

졌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금융권은 대동건설(주)의 총 부채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금융권과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동건설(주)은 올해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625위(전남 47위)의 중견업체로, 화순에 본사를 두고 영암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건설경기 위축으로 공사수주가 크게 감소한 데다 최근 남원지역에서 317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건설(주)의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252억9천만 원으로, 지난해(553억 원)에 비해 절

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W건설이 자금압박으로 인해 화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14일에는 전국 시공능력 275위(전남 22위)인 거립건설이 부도처리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는 전문건설업체 및 금융권의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이후 광주·전남에서 문을 닫은 일반·전문 건설업체는 10곳에 달할 만큼 연쇄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계가 궁지로 몰

린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일감'이 크게 줄어든 데다 상당수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최악의 미분양 사태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 또한 지방의 주택경기를 살리기엔 '때늦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치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업체의 도산은 물론, 고용 악화, 금융권과 협력업체 타격 등 지역경제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가스기술공사 호남사업소가 무재해 4천200일을 달성, 4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는 장순호(왼쪽 여덟번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과 박춘근(" 여섯번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호남사업소 무재해 4,200일 달성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호남사업소(소장 정해근)가 무재해 10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1996년 3월4일부터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호남사업소는 올해 9월2일까지 총 4천200일 동안의 무재해 일수를 기록한 것이다. 호남사업소는 4일 1층 대강당에

서 장순호 사장과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연홍)로부터 목표일수 기준 무재해 10배 인증서를 받았다.

장순호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가스기술공사 전직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 전 사업장에서 무재해 달성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호남사업소는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기까지 연 2회의 정기 아차사고 사례발표, 매분기마다 가상사고 적응훈련,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공단의 무재해 운동에 참여한 기업은 11만4201개이지만 무재해 10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전체의 0.5%인 550개에 불과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미분양 사태 확산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가 미분양대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상황, 특히 파주신도시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가 추 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미분양사태를 지방의 문제로만 여겼던 정부는 파주신도시에서조차 미분양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

정부, 심각성 인정 대책 고심 업계 "전매 제한 완화해 달라"

기 위해 추진한 2기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지난달 말 6개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섰다.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천68가구중 1천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많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

을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미분양대책에는 전매제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등을 꼽고 있다.

이중에서도 업계가 최우선으로 꼽는 것은 전매제한 완화이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11대책에 따라 지난 9월부터는 최장 10년으로 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이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주택이 7년·5년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중소 광주·전남본부 조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2008년에 인력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내 211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인력 채용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8.3%가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채용문 '활짝' 10곳 중 6곳 "내년 인력 채용하겠다"

그러나 채용계획이 없거나(24.6%) 미정인 업체(17.1%) 비율도 상당히 높아 지역업체 일각에서는 2008년 경제상황을 여전히 낙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인력채용 사유(복수응답)로는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54.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우수인력 확보(33.8%)', '신규투자·생산규모 확대(33.1%)', '현재인원 부족(30.1%)', '경기호전 예상(3.0%)'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

인력채용 경로(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사설업체 등을 통한 구인광고(59.7%)', '공공기관 취업알선센터(53.6%)', '학연·지연 등 연고(39.8%)', '학교 취업상담실(8.5%)', '채용박람회(3.3%)' 등으로 답했다.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인력채용시 고용 보조금 및 세제지원(7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종태기자 jilee@

내년 세계 콩·밀 가격 5~8% ↑ 국내 축산업계 소득 2,156억 ↓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내년 세계 시장에서 콩과 밀 가격이 5~8% 오르는 반면 올해 폭등세를 보인 옥수수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유가 급등세가 이어져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 내년도도 주요 곡물 가격 상승률이 10%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원은 4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 농업 영향'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미국 농업부 및 통계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이 현재 짜놓은 중장기 바이오연료 정책을 예정대로 실행하고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

우, 내년 국제 옥수수 가격은 t당 155달러로 올해의 159달러보다 2.5% 정도 떨어져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두(콩)로 대표되는 유지(油脂)작물과 소맥(밀) 값은 재배면적이 줄고 생산이 소비를 따르지 못해 4.5%, 8.1%씩 추가 상승, 각각 325달러와 32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와 같은 유가 폭등이 계속되고 내년 이후 바이오 연료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10% 늘어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옥수수 값도 2008년 165달러, 2010년 173달러 등으로 계속 높아진다.

연구원은 이처럼 향후 3년동안 곡물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내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사료값 인상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소득 감소 규모가 1천78억~2천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셋톱박스 업체 '셀런' 광주 첨단산단에 IPTV 연구센터 설립

IPTV 셋톱박스 업체 셀런은 4일 광주 첨단산단에 '셀런 IPTV 연구센터'를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28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착공, 1년7개월만에 완공된 연구센터는 9천917㎡ 부지에 건축면적 1천332㎡ 규모로 향후 IPTV 전반에 걸친 핵심기술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말했다.

셀런 김영민 사장은 "IPTV 전문 연구센터 설립으로 셀런은 앞으로 독자적인 IPTV 기술력을 축적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우수 고등인력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광주가 첨단 IPTV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지속되는 유가 현금 특돈 발행 → **겨울 난방 고민 끝**

초절전형 냉난방기 인스 하자!

무이자 12개월정액 할당 3개월 미납시

시공일, 시공, 수급 책임은 계약서상 규정, 할당 할당 등 (계약서 면서 고지)

무이자 12개월정액 할당 3개월 미납시

080-372-29000

MITSUBISHI 세계최고 성능 온수 냉난방기

선택하신 고객들에게서 100% 대만족

냉난방기, 워트 펌프, 유지비는 내릴 것

0621434-5351-2